



OFFICIALMAIL

제품을 만드는 속도에 맞춰, 메일 인프라도 바로 연결합니다.

공식 도메인 메일 · 서비스 발송 API · AI 자동화를 하나의 계정으로

메일함은 시작점이고, 제품 발송 API가 확장점입니다

AI 코딩으로 서비스 출시는 빨라졌지만, 고객에게 가입·주문·결제·비밀번호 메일을 보내는 순간 별도의 도메인 인증과 발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84%

2025년 개발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

- **사람의 메일**

문의·제휴·정산을 대표 도메인 메일함에서 처리합니다.

- **제품의 메일**

회원가입·주문·배송·비밀번호 메일을 API로 발송합니다.

- **AI의 메일**

에이전트가 같은 API를 호출해 보고·알림·후속 메일을 자동화합니다.

제품 코드는 빨리 만들어져도 고객 메일은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피셜메일은 '개통 완료'에서 '제품 발송 완료'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2025년에 제작 장벽이 무너졌고, 2026년에는 운영 장벽이 다음 병목이 됐습니다



2024

생성형 AI 보조

개발자가 코딩 도구를 업무에 도입 하던 단계



2025

바이브코딩 확산

AI 도구 사용·계획 84%, AI 저장소 430만 개. 제작 장벽 급감



2026

사업화 인프라 수요

AI 중심 개발 방식이 정착되며 신뢰·계정·보안·고객응대 같은 운영 품질이 차별화 요소로 이동

해석

코드는 더 빨리 만들어지지만, 회사 이름으로 메일을 보내는 순간부터는 '운영 가능한 사업자'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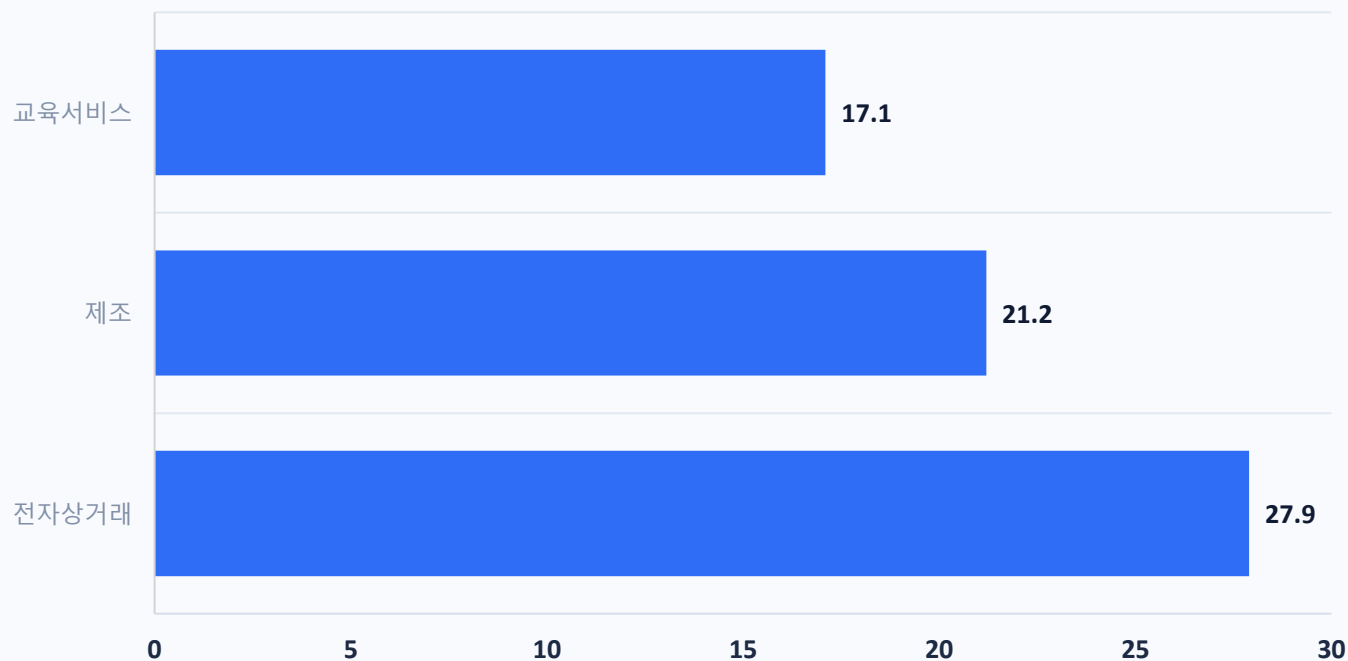
1인 사업자는 이미 116만 개를 넘었고, 온라인 사업 비중이 가장 큼니다

1,162,529개

20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

+15.4%

전년 1,007,769개 대비 증가



단위: % · 2025년 실태조사(2023년 기업통계등록부 기준)

한 도메인으로 메일함과 서비스 발송을 함께 시작합니다

01

도메인 연결

MX·SPF·DKIM·DMARC
값 제공과 상태 검증

02

대표 메일

문의·제휴·정산을
공식 주소로 송수신

03

API 키 발급

성장 플랜에서 서버용
발송 키를 안전하게 생성

04

제품·AI 호출

가입·주문·알림·보고를
같은 도메인으로 발송

메일함과 API가 같은 계정·도메인·발송 로그 위에서 작동합니다.

사람과 제품이 보내는 메일을 하나의 운영 레이어로 묶습니다

사람이 보내는 메일

대표 메일함

문의 · 제휴 · 견적 · 정산

AI 어시스트

수신 요약 · 답장 릴레이

IMAP/SMTP

Outlook · Apple Mail

서비스가 보내는 메일

POST /api/v1/mail/send

가입 · 주문 · 결제 · 배송 · 비밀번호

GET /messages/{messageId}

대기 · 발송 · 실패 상태와 로그 조회

성장 플랜부터 외부 연동 사용 · 요청당 최대 50명 · API 키는 서버 환경변수에 보관

작은 팀이 먼저 필요한 메일 운영에 집중합니다

오피셜메일

대표 1개 무료
성장 3,900원/인(VAT 별도)

도메인 메일 개통·AI·자동화

NAVER WORKS

Standard
월 8,500원/인

업무 협업·그룹웨어

Google Workspace

Starter
\$7/인·월

생산성 도구 전체

Microsoft 365

Business Basic
월 7,300원/인

Office·메일·클라우드

가격은 2026-08-06 공개 페이지 기준 · 제품 범위가 달라 직접적인 기능 동등 비교가 아님

유료 매출은 아직 작고, 지금 검증할 것은 활성화와 반복 사용입니다

30명

외부 가입 사용자

13개

DNS 검증 완료 도메인

14개

활성 메일함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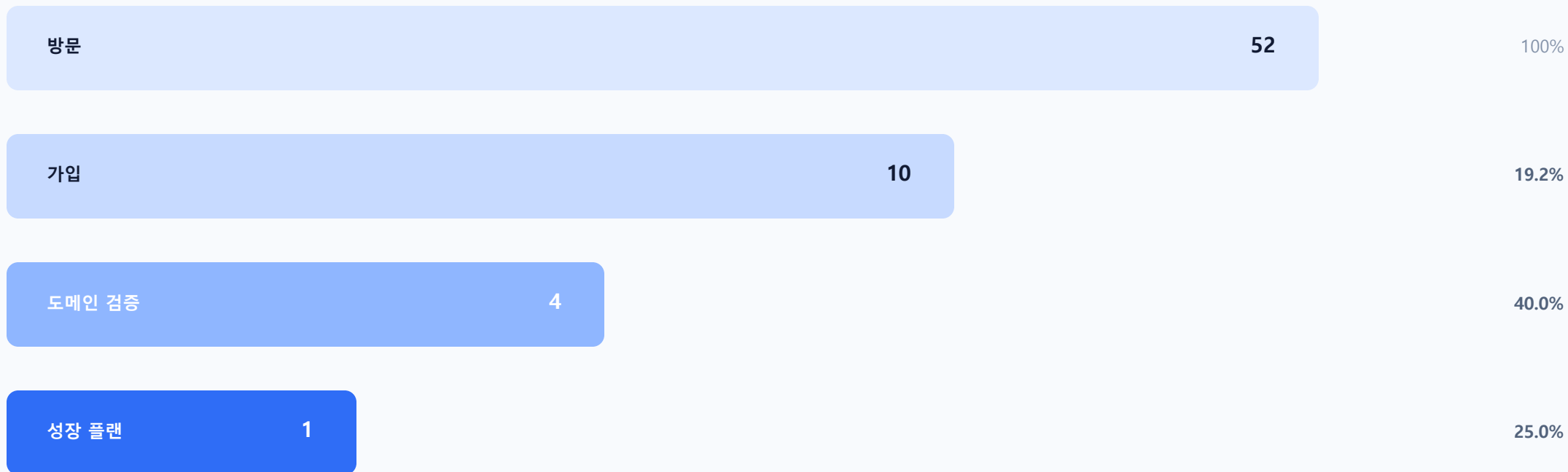
활성 유료 구독

확인된 신호

가입 → DNS 검증 → 실제 메일 사용 → 유료 전환의 전체 흐름이 제품 안에서 발생

최근 30일 성공 청구 3건 · 11,700원은 매출 성과가 아니라 결제 흐름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초기 확인값으로만 사용합니다.

다음 우선순위는 유입 확대보다 DNS 검증 완료율입니다



30일 기준 · 단계별 전환율 · 표본이 작아 방향성 진단에만 사용

대표 계정 무료가 진입을 만들고, 팀 운영이 반복 매출을 만듭니다

0원

대표 메일 1개

도메인 메일을 실제로 개통해
가치를 먼저 경험

+

3,900원

(VAT 별도)

전체 팀 인원 · 월

멤버·AI·자동발송·API/IMAP
사용 시 성장 플랜

+

9,900원

(VAT 별도)

설정 대행 · 1회

제휴 고객은 신규 도메인당
100% 할인 쿠폰 제공

수익 핵심: 활성 도메인 × 유료 전환율 × 평균 유료 좌석 × 공급가 3,900원

핵심 고객군만으로도 연간 좌석 매출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544억원

TAM · 1인 창조기업 전체가
1석을 12개월 사용하는 이론값

152억원

SAM · 전자상거래 27.9%가
1석을 12개월 사용하는 이론값

4.94억원

SOM · 36개월 기준 시나리오
10,560 유료 좌석 ARR

TAM $1,162,529\text{개} \times 3,900\text{원} \times 12\text{개월}$

SAM $324,346\text{개} \times 3,900\text{원} \times 12\text{개월}$

시장 규모 보장이 아니라 동일 가격·1석 가정의 접근 가능 매출 풀

검색 의도, 파트너 유통, 제품 경험이 하나의 성장 루프를 만듭니다

채널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	오피셜메일의 실행
검색	회사 이메일 만들기·DNS 오류·Gmail 반송 해결	문제 해결 콘텐츠와 무료 진단 도구
파트너	공유오피스·창업센터·도메인·웹빌더	대표 1개 무료 + 9,900원 쿠폰
제품	가입 → 도메인 검증 → 첫 송수신	활성화 이벤트와 도움말로 이탈 감소
개발자	서비스 출시·트랜잭션 메일 구현	API 문서·AI 코딩 예제로 첫 발송 단축

방어력은 서버 한 대가 아니라 '도메인-발송-상태' 데이터의 연결입니다

- 도메인 연결 지식

등록기관·네임서버·레코드 실패 패턴이 검증 로직과 도움말을 개선합니다.

- 추적 가능한 API

발송 요청마다 messageId를 반환하고 상태·실패 로그를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발신 정체성

사람의 메일함과 제품 API가 같은 도메인·계정 정책 위에서 작동합니다.

- AI 친화적 연동

명확한 REST 계약과 예제로 코딩 에이전트가 서버 연동 코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율을 먼저 증명하고, 이후 유통과 좌석 매출을 확장합니다

0-6개월

Activation

도메인 검증 완료율 60%+
첫 송수신 시간 단축
설정 대행 운영 표준화

7-12개월

Developer experience

언어별 API 예제
AI 스킴·도구 호출 규격
발송 상태 웹훅 검증

13-18개월

Distribution

파트너 파일럿 10곳
전용 링크·쿠폰 추적
활성 도메인·좌석 확장

18개월 수치는 경영 가정이며 확정 예측이 아닙니다. 활성화 KPI가 선행되지 않으면 유통비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에서도 활성 도메인과 좌석 밀도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시나리오	활성 도메인	유료 전환	평균 좌석	유료 좌석	ARR
보수	15,000	8%	1.8	2,160	1.01억원
기준	40,000	12%	2.2	10,560	4.94억원
확장	100,000	15%	2.5	37,500	17.55억원

계산식: 활성 도메인 × 유료 전환율 × 평균 유료 좌석 × 공급가 3,900원 × 12개월

경영 가정

성장보다 먼저 실패 비용이 커지는 지점을 통제합니다

위험	통제 장치	관찰 지표
DNS 지원 병목	표준 작업 범위·기관별 가이드·쿠폰 1회 제한	개통 시간 / 검증 완료율
발송 평판	SPF·DKIM·DMARC 검증, 속도 제한, 로그	반송률 / 인증 통과율
낮은 유료 전환	팀·AI·외부연동의 사용 시점에서만 과금	도메인→유료 전환
운영 신뢰	무중단 배포·큐 복구·상태 모니터링	가동률 / 복구시간



THE DECISION

모든 작은 서비스의 첫 번째 발신 인프라가 됩니다.

공식 메일함으로 시작해 가입·주문·결제·알림 API와 AI 에이전트 발송으로 확장합니다.
투자금은 개통 자동화, 발송 신뢰, 개발자 경험, 파트너 유통에 단계적으로 투입합니다.

officialsite.kr

sanghyun@officialsite.kr